수좌들 석 달 정진…“마음 본래주인 찾자”

전국 총림 · 선원 하안거 결제법회 봉행

양행선 · 유재상 · 김선행 · 이동격 지사장

전국 총림과 선원들이 5월 31일 병오년 하안거를 맞아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 동안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5월 31일 대웅보전에서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총림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무자 스님과 소임자 스님, 수좌 스님, 신도 등이 참석했다.

법상에 오른 방장 현묵 스님은 결제 법어를 통해 “한 철, 두 철 살아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아 낙담할 수 있지만 묵묵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행의 꽃을 피우게 된다”며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리고 산봉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보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올해 송광사 하안거에는 선원 대중 15명을 비롯해 소임자와 율원·강원·염불원 대중 등 모두 118명이 방부를 들였다. 대중들은 음력 7월 15일 해제일까지 제방에 머물며 참선과 수행 정진에 전념하게 된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5월 31일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다. 결제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산내 암자와 본말사 대중 스님들이 참석했다.

방장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를수록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대자대비의 사랑이 무르익는다”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물건, 보고 듣는 이 물건을 회복하는 것이 여름 결제의 뜻”이라고 설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대중 스님들의 정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덕사는 정혜사와 향천사, 천장사, 개심사, 견성암, 보덕사, 법륜사, 법계사, 강원, 율원, 염불원, 극락암, 선수암, 환희대, 외호대중 등 총 182명의 스님이 병오년 하안거 결제에 입방해 석 달간 정진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대종사가 하안거 결제 법어를 설하고 있다.


조계종 전 종정 진제 대종사가 결제 법어 중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5월 31일 대웅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수좌 일수 스님을 비롯해 주지 무공 스님, 고불선원과 운문선원 안거 대중 등이 동참했다.

수좌 일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결제를 기점으로 삼라만상의 인연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생사 한 가지 일에 전념했으면 한다”며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뒤쫓지 말고 번뇌가 생겨도 붙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안거에는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에 23명의 납자가 방부를 들였으며, 외호대중을 포함해 모두 78명이 백양사에서 안거에 동참한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5월 31일 통일기원대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하안거 정진의 시작을 알렸다.

결제 법사로 나선 전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오로지 화두참구의 방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며 “견성과 확철대오를 위한 90일간의 참선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하안거 기간 동화사에서는 금당선원을 비롯해 양진암, 내원암, 부도암 등 각 선원의 수좌 스님들이 외출과 대외 활동을 최소화한 채 오직 수행에 전념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선원들도 이날 일제히 결제에 들었다. 봉암사를 비롯해 불국선원, 천불선원, 천축선원, 대승선원 등 30여 곳의 선원에서 입제식이 봉행되며 수좌들의 90일 정진이 시작됐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5월 31일 적광전에서 ‘불기 2570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하안거에는 월정사 만월선원 17명, 상원사 청량선원 18명, 북대 미륵암 상왕선원 7명, 동림선원 7명, 지장암 기린선원 10명 등 모두 59명의 수좌가 안거에 들었다. 외호대중을 포함한 전체 결제 대중은 비구 117명, 비구니 21명, 재가 종무원 114명 등 총 254명에 이른다.

이날 법요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제 정신을 되새기고 수행자의 본분을 다해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며 “한 철 동안 오직 수행에 전념해 불법의 등불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이번 하안거에는 오대산자연명상마을 동림선원의 온라인 정진 대중 39명도 결제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월정사는 명상치유문화의 성지로서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일상 속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교 궁극적 의미는 평화”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 성료
5월 30일, 월정사 화엄루서
정념 스님 “하나됨 발견을”

“평화가 궁극적인 종교의 의미입니다. 종교는 본래 평화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 종교의 본질적 역할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월정사가 주최하고 월정사 화엄선연구소(소장 향산 스님), 아시아종교평화학회(회장 이찬수), 대전환포럼(이창현)이 공동 주관한 ‘202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이 5월 30일 월정사 화엄루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쟁의 시대, 월정사 세계종교학자들의 대화’를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출간된 〈기도는 왜 총성이 되었나 : 전쟁하는 종교, 위태로운 평화〉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종교와 평화의 관계를 심도 있게 조명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5월 30일 화엄루에서 ‘202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문을 연 정념 스님은 기조법문에서 오대산의 자연을 평화와 조화의 상징으로 설명하며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의 가치가 오늘날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교적 평화의 의미를 설명하며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정념 스님은 “탄허 스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 도가 없고 성인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설하셨다”며 “불교적 평화란 업성과 마음의 표현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근원적 하나됨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국제사회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며 종교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정념 스님은 “패권 경쟁과 전쟁의 역사 이면에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해 왔다”며 “종교 간 평화를 논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궁극적인 종교의 의미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종교는 본래 평화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포럼을 주관한 향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전쟁으로 인해 위태로운 평화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종교는 역사적 책임을 성찰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언어를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종교든 본질적 가치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저자 포럼에서는 이찬수 가톨릭대 교수, 홍미정 단국대 교수, 이병성 연세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문유정 동국대 교수, 정상교 금강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십자군 전쟁, 근대 일본불교 등의 사례를 통해 종교와 전쟁, 평화의 관계를 고찰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신흥사, 무산 대종사 8주기 다례재

5월 28일 설법전서 봉행



설악산문을 중흥시킨 선지식이자 한글 선시(禪詩)의 선구자인 설악당 무산 대종사를 추모하는 ‘설악당 무산 대종사 8주기 다례재’가 5월 28일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암도 스님과 원로의원 도후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 등명낙가사 회주 청우 스님, 백담사 기본선원장 대전 스님, 전 무문관선원장 신용 스님 등이 참석했다.

지혜 스님은 다례재에서 참석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스님께서는 평생 가람수호와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하셨고, 부족하나마 그 유지를 받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말씀하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흥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충남 남방불교 사찰, ‘웨삭 법회’ 성료

5월 31일 웨삭 봉축행사



남방불교 최대 명절인 웨삭데이(Vesak Day)를 맞아 충남 지역 스리랑카·태국·베트남 사찰들이 봉축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열반을 기렸다.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 천안 붓다라마사(주지 찌라삭 스님), 천안 원오사(주지 틱 뜨엉탄 스님)는 5월 31일 웨삭 봉축행사를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계평화와 중생의 안녕을 발원했다.

마하위하라에서는 담마끼띠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공양 의식이 진행됐다.〈사진〉

붓다라마사에서는 찌라삭 스님을 중심으로 태국 불자들이 모여 웨삭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원오사에서는 틱 뜨엉탄 스님과 베트남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와 관불 의식이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민주 보살’ 김동수 열사 46주기 추모재

전남도청 앞마당서 문화제
제1회 ‘김동수상’ 시상식도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민주의 보살’ 고(故) 김동수 열사의 46주기 추모재가 열사의 최후 항쟁지에서 엄수됐다. 특히 올해는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과 함께 열사의 마지막 모습을 형상화한 추모화가 공개돼 깊은 울림을 전했다.

김동수기념사업회(상임대표 이재수)는 5월 26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 앞마당에서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 및 46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 장소는 김동수 열사가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역사적 현장으로, 참가자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열사의 넋을 기렸다.

행사에는 김동수 열사의 어머니 김병순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동수기념사업회 이재수 상임대표, 이순규 고문,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김춘성 조선대 총장, 지병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장, 양고승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진성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대불련 동문과 시민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김동수기념사업회는 5월 26일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 및 46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김동수 열사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추모화가 공개됐다.

특히 이날 공개된 추모화 ‘넋이여, 망월동에 잠든 넋이여’는 김동수 열사가 계엄군에 의해 끌려가는 마지막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참석자들에게 5·18의 참혹한 기억과 열사의 희생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했다.

작품을 그린 양은선 작가는 글을 통해 “5·18 자료를 찾아보던 중 총을 멘 군인들이 젊은 주검을 끌고 가는 사진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며 “그 인물이 김동수 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열사의 고통과 광주의 아픔을 그림으로 기억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문화제와 함께 열린 ‘제1회 지혜의 빛 김동수상’ 시상식에서는 광주 충장로 동네책방 ‘소년의 서’의 임인자 대표와 이동철 광주월곡중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인자 대표는 연극인과 독립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술계 블랙리스트, 형제복지원 사건, 5·18 성폭력 사건 등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연대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광주민중항쟁 해설과 기록 활동 등을 통해 오월 정신 확산에 기여해 왔다.

이동철 교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함께 세월호 추모, 민간인학살 해원굿,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기도 등을 이어오며 역사 치유와 기억의 현장을 지켜왔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매년 5월극을 제작하며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김동수기념사업회는 “두 수상자의 삶과 실천은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며 자비행을 실천한 김동수 열사의 뜻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재수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46년 전 이 시간,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2년 전에 온몸으로 경험했다”며 “김동수 열사의 큰 뜻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등대가 됐다. 열사의 정신을 선양하며 5월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동 불자들, 108배로 자비나눔

법림사지 5층 전탑 앞서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와 조계종 포교사단 경북지역단 안동포교사팀은 5월 30일 안동 법림사지 5층 전탑 앞에서 ‘신행단체 연합 헌공법회 및 난치병 어린이 돕기 절 수행의 밤’을 개최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범종 스님(광흥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오늘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올리는 108배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픈 모든 이들을 나와 다르지 않게 여기고 존중하겠다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실천”이라며 “내년에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까지 함께 동참해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108배 정진을 하고 법림사지 5층 전탑을 돌며 난치병 어린이들의 조속한 쾌유와 가족들의 평안을 발원했다. 또 모금에 동참하며 수행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